

# 정부,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 적극 지원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및 15개 시·도 상표디자인 담당 과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산물 및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특허청은 2002 한·일 월드컵으로 형성된 국가이미지 상승효과를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및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해 왔으며, 이를 상표 및 의장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본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특허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설명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시·도 참석자는 지역 고유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특허청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자체 공무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영농단체 및 특산물 생산업체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의장 권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전대신고 오기영 교사 세계영재대회 심사 맡아

대전대신고 화학교사인 오기영씨(32)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미국 컴퓨터 회사인 인텔이 후원하는 '인텔 국제과학전람회(Intel ISEF)'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7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과학영재 경진대회인 이 전람회는 오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다. 오씨가 이 전람회의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은 '화학실험 시뮬레이션' 등 40여건의 뛰어난 개인적인 연구 업적 때문. 여기에서 7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4,500여건의 학생 과학작품을 지도하고 이 가운데 700여건을 각종 대회에 출품시킨 역량이 인정된 것이라 밝혀졌다. 이 중 130여건은 특허로 출원될 정도로 우수 작품들이었다. 이 전람회에는 40여개국 과학영재들이 물리학 등 15개 분야에서 작성한 50여만건의 과학 논문과 작품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200여건이 출품되며 상금 총액은 36억원이 넘는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이지만 연구 내용은 석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수년 전부터 컴퓨터 분야에만 참가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8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인사 가운데 전람회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벨상 수상자들도 종종 이 전람회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방학이면 자비로 미국 MIT와 뉴욕주립대, 미국 특허청 등을 방문하거나 해외 과학전람회를 참관, 자료를 수집해 학생들의 작품 지도에 활용해 온 오씨는 '심사위원 활동이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을 지도하는데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연구소, 일본서 VBS 사업 본격화 예정



안철수연구소는 자사 일본 총판인 치요다구미가 NTT 계열사인 NTTPC 커뮤니케이션과 사업 제휴를 맺고 바이러스 사전 차단 서비스인 VBS 사업을 일본에서 본격화한다고 지난 달 10일 밝혔다.

안철수연구소의 VBS는 NTT-TPC의 전용 서버 호스팅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웹 아레나 솔로 서버 제품에 장착돼 판매될 예정이다. 치요다구미와 NTTPC는 이번 제휴를 통해 올해 VBS가 장착된 200대의 서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BS는 신종 악성 바이러스나 웜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메일(E-mail)을 통해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사전 예방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말 일본에서 처음 출시한 바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일본 시장에서 우선 VBS 사업을 본격화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안철수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인 VBS는 한국과 일본에 특허 출원 중이다.

# 마늘 추출액에 동맥경화 억제효과 있다

마늘의 추출액에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와쿠나가(湧永)제약은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늘 추출액 캡슐을 복용시키는 임상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지난 달 1일 전했다.

연구팀은 동맥경화로 관(冠)동맥의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뒤 재차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 19명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한쪽 그룹에게는 마늘 추출액이 들어간 캡슐을 매일 4캡슐씩 1년간 투여했고, 나머지 한쪽 그룹에 대해서는 마늘 추출액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동맥경화의 지표인 관동맥의 칼슘 수치와 관련해 추출액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칼슘치가 평균 22.2%에 달한 반면, 복용한 환자의 칼슘치는 평균 7.5%에 그쳐 추출액이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된 추출액은 마늘을 2년간 알코올에 절인 것으로 마늘 성분으로부터 생인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생마늘에는 아미노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 Health News

#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비타민(Vitamin)의 어원은 'vital'이며, 생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소이다. 체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항상 보충해줘야 하므로 식사를 자주 건너뛰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면 꼭 비타민을 꼭 챙겨먹어야 한다.

또 비타민은 모자라도 문제, 넘쳐도 문제다. 수용성 비타민(비타민C, B, 엽산)은 넘치면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지용성 비타민(비타민A, D)은 몸안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비타민은 독성을 띤다. 많은 종류의 비타민 중 비타민 B<sub>1</sub>을 1.3mg 정도 복용하거나 하루 400~600μg의 양이 들어있는 엽산을 보충제로 사용하면 과음으로 오는 몸의 무기력, 기억력 감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탄산음료에는 비타민이 없는데, 비타민이 없으면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므로 몸안의 비타민을 자주 쓰게 되므로 탄산음료를 다량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또한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을 소비하는 셈으로 이는 곧 하루에 포함된 비타민C의 양과 맞먹는다. 담배를 피울수록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 ■ 하루 비타민 섭취량(성인 기준)

<b>A</b> 당근 반개	<b>B6</b> 바나나 1개	감자 2개
<b>B1</b> 현미밥 두 그릇	돼지고기 115g	<b>C</b> 귤 1개 반
<b>B2</b> 우유 200ml 짜리 2개	<b>E</b> 땅콩 40개	

(자료: 한국영양학회,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 여성탈모 알고 나면 두려울 것 없다

흔히 여성은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성들은 앞머리가 벗겨지는 남성들에 비해 속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여성탈모는 머리칼이 다량으로 빠지면서 술 자체가 적어지고 또 연모화(굵은 머리칼이 잔털로 변함)의 상태에서 진행을 멈추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20, 30대 여성에게도 탈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서울 서초구 피부과(모델로 모발이식센터) 전문의 서구일 씨는 '각종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가 탈모를 촉진하는 주원인'이라며 '그러나 확실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탈모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무리한 다이어트와 피임약의 남용을 피해야 한다. 충분한 영양섭취와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머리는 매일 감아도 무방하며 퍼머나 염색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경우에는 바르는 약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미녹시딜은 유일하게 그 효과가 입증된 약으로, 탈모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탈모의 진행을 늦춘다는 데 목표를 두고 최소한 4개월은 사용해야 탈모가 감소한다.

또한 탈모치료제로 약모제, 육모제 등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모발이식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